

[ 특 집 ]



말레이시아 세팁 F1그랑프리



지난 23일 말레이시아 세팁에서 열린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2라운드 결승에서 F1 머신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매년 1조 富 일구는 '스피드 천국'

Table with 3 columns: Year, Host Country, and Host City. Lists F1 Grand Prix events from 2003 to 2011.

그랑프리 시작 1주일전부터 시내 곳곳 온통 축제 직접고용 3,000명...외국인 관람객만 10만명 달해

2008 F1(포뮬러원) 말레이시아 그랑프리 대회가 열린던 사흘(21~23일)간 쿠알라룸푸르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는 말레이시아 그랑프리 열기는 레이스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시내에서 먼저 느껴졌다. 세팁 서킷에서 70km 떨어진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일주일전부터 F1 열기로 들쭉였다. 쿠알라룸푸르 시내의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그랑프리 세일'을 벌였고 시내 곳곳에선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잇따랐다.

레이시아 그랑프리 결승전,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22대의 경주용 머신이 일제히 780마력의 출력을 뿜어냈다. 고막을 찢듯 뚫는 굉음, 타이어가 급회전을 하면서 나는 연기와 냄새가 퍼지면서 구구종종 중 가장 속도가 높다는 배드민턴 셔틀콕보다 빠른 F1 레이스(시속 303km)가 시작됐다. F1 월드챔피언십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시즌 18라운드 중 1개 대회)는 외국인 10만여 명을 포함, 23만 5천여 명의 외국 관광객을 끌어 모은 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스포츠 이벤트를 자국 패션 산업 및 문화 발전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게 말레이시아의 전략이다.

F1(포뮬러 1)이란

F1은 '포뮬러(Formula)'의 준말이다. 포뮬러라는 말은 자동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용) 자동차가 따라야 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20세기 초 여러 자동차 경주 대회를 통일하는 규정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됐고, 1950년 5월 13일 영국 실버스톤에서 이 규정이 적용된 제1회 포뮬러1(F1) 세계선수권

권이 개최됐다. 바로 브리티시 그랑프리다. 59번째 시즌인 올해 F1은 3월 16일 호주 멜버른 대회를 시작으로 11월 2일 브라질 상파울루 대회까지 18회의 그랑프리로 구성된다. F1 우승은 드라이버와 팀 2개 부문으로 나뉜다. 전체 그랑프리 참가 성적을 더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선수가 드라이버 챔피언이 되며, 각 팀당 2명씩인 드라이버의 점수 합계가 팀 챔피언을 정한다.

F1과 관련해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인 말레이시아에서 쓰고 간 돈은 1조 원으로 추산됐다.

전문학적 금액이지만 이는 F1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일부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투자전문회사 딜로이트는 지난해 17차례 열린 F1 그랑프리를 통해 얻은 총수입이 3조 9천억 원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3조 원의 매출을 올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뛰어넘는 수치다.

2007년 말레이시아 F1대회 개최 결과, F1대회 결승전 관람객 수는 총 11만 5천 명(외국인 40%)이며 팔라룸푸르 방문객 수(3월 중)는 무려 19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 F1대회 운영을 위한 직접 고용이 3천 명에, 경제파급효과도 1조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F1대회 전만 개최(2010년)가 가시화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마케팅으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 5대 생산국에 속하는 한국으로서의 국가지명도와 신인도 향상·관광산업 활성화 등 복합적인 경제효과를 위해 F1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예정대로 오는 2010년 가을에 영암에서 F1대회(3일간)가 열릴 경우 하루 평균 11만명에 육박하는 관람객 유치와 1조 원의 직간접 경제 유발효과 등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다토 미르자 말레이시아 관광청장 인터뷰

"F1 유치·경기장 건설 등 정부가 앞장서 자금 조달"

"F1 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자동차회사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다토 미르자 모하메드 타이야브 관광청장은 지난 23일 2008 F1대회 말레이시아 그랑프리 열린 쿠알라룸푸르 세팁 경기장에서 전남도 관계자 및 언론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F1대회 유치와 경기장 건설 등 많은 자금이 필요했을 때 말레이시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금을 조달해 주었다"며 "지금은 자동차회사 및 광고회사 등 새로운 스폰서들이 F1대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토 미르자 관광청장은 "F1대회 유치는 말레이시아 내 자동차 메이커를 발전시키고 보다 현대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국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개최가 결정되는 즉시 정부도 함께 뛰어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F1대회로 인해 말레이시아로서는 관광부수기였던 3월이 이제 최



고의 관광시즌으로 자리잡았다"면서 "3월에만 2005년 140만명, 2006년 150만명, 2007년 190만명이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는 등 새로운 관광자원이 된 지 오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토 미르자 청장은 "F1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 고용되는 인원만 3천명에 달한다"며 "1999년 첫 대회 당시 5억달러(5천억원)였던 관람객 지출 총액이 지난해에는 10억달러(1조원)로 증가하는 등 경제효과도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팁 F1 경기장의 경우 대회 이외의 기간에는 모터사이클 대회 슈퍼 GT, F3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대회가 없는 날에도 테스트 주행과 차량 동호회 중심의 스포츠 드라이빙 등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300일 이상 운영되고 있는 등 수익사업의 폭도 넓다"고 설명했다.



23일 말레이시아 세팁에서 열린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2라운드 결승전에 많은 응원단과 관람객이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첨단월계공인중개사' (Advanced Moongye Real Estate) with a focus on '금매매' (gold sale)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Gohung New City Real Estate) highlighting '심.완도개인독선'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보부동산건설링' (Gumbodang Real Estate) featuring '토지매매' (land sale) and '건물매매' (building sale)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 (Court Auction Specialist) by '지지경매컨설팅(주)' (Jiji Auction Consulting Co., Ltd.) with detailed auction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회사' (Court Auction Specialist Company) by '법원경매인합창(주)' (Court Auction In-hyang Co., Ltd.) with detailed auction listings.